

## 한글전용을 반대한다 — 한자혼용을 주장하면서 —

나 운 영

국어국문학하곤 거리가 멀지만 나는 자칭 '이두문학자'(?)라고나 할까... 1960년에 나는 <단종애사>란 수필을 쓴 일이 있다.

'문교부 주최 제7·8회 전국음악 경연대회에 바이올린과 첼로 부문에는 참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략) 요즈음에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버젓이 개인교수를 하고 있을 만큼 교육열(?)이 왕성한 모양인데도 우수한 신인이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 또한 단종애사斷種哀史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소위 이두문학에 남다른 취미를 갖게 되었다.

물건을 파는 것도 매賣요, 사는 것도 매買다.

결혼한 남자도 부夫요, 여자도 부婦다.

경기에 이긴 자도 패자覇者요, 진 자도 패자敗者다.

도대체 어느 것을 뜻하는지 모를 일이다.

방화(防火·放火), 진통제(鎮痛劑·陣痛制), 오락(娛樂·誤樂), 실업가(實業家·失業家), 공약(公約·空約), 광주(光州·廣州), 여인숙(旅人宿·女人宿), 무용가(舞踊家·無用家), 사업가(事業家·邪業家), 수학여행(修學旅行·受虐旅行), 배외사상(拜外思想·排外思想), 사교(社交·邪交), 부창부수(夫唱婦隨·婦唱夫隨), 사모님(師母님·思慕님), 방자(房子·妨子), 연고전(延高戰·連苦戰), 한일회담(韓日會談·閑日會談), 전위음악(前衛音樂·全僞音樂), 화장실(化粧室·火葬室) 등등...

한자는 표의문자인데 한글로만 쓰면 어리둥절해질 때가 많다. 하기가 글의 앞뒤를 보면 짐작이 가겠지만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그래도 혼동되기 쉽다. 더욱이 우리 동양에서 국제적 활동을 할 때에 한자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일인데 '한글전용'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신문·잡지를 제대로 읽을 수 없고, 한자를 제대로 적지 못해 그림 그리듯 그리고 있는 형편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국가가 새로운 문명을 양산해 놓은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위에서 선보인 이두식 신어新語를 보고 그저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은 백성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쉬워야 하며, 뜻이 분명하고 편리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이 밖에도 지분持分, 역할役割, 취급取扱, 입장立場, 추월追越 등등 일본말이 그대로 한글로 둔갑하여 애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 이래도 한글전용을 고집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글전용'이란 말도 '한글만 쓰기'로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전용은 전용專用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용轉用인가...

한글전용만이 애국하는 길은 아니다. 한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글만으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 혼동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한자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국민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면 어린이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준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듯한데 유럽 사람들이 영어·독어·불어를 별 부담 없이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비해 도리어 쉬운 편이다.

한글전용도 아니고 한자전용도 아닌 한자혼용(섞어 쓰기)의 실천 방안으로는 — 첫째로 상용한자를 제한·제정하여 적어도 신문·잡지 정도는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눈 뜬 백성을 만들 것. 둘째로 약자略字를 적극 개발하되 中中·일미의 것을 참고, 확정하여 빠르게 적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셋째로 한문식 용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새로 만들어서 쓸 것 —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우리나라 전화번호부에는 '김정자'란 동명이인이 상상외로 너무도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한글전용의 잘못(어리석음)을 노출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적어도 이름만은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름을 한자로 적는다 해도 '김정자金靜子'가 하도 많아 누군지 알아내기가 힘들긴 하나 그래도 '김정자' 보다는 훨씬 편리할 것이다 (貞·正·晶·靖과 구별이 되니까).

끝으로 올해부터 국경일에서 "한글날"을 제외시킨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한글"인데 어쩌서 한글날을 제외했는지 그 이유를 온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보다도 "한글전용에 앞장선 한글학회"는 무엇 때문에 잠잠한가? 가상假想 "한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한 것은 아닐 텐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월간 한국논단, '91. 3월〉